

부모의 고위험 음주 행동이 자녀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

장주동¹, 한송이^{1,2}, 이무식^{3*}

¹건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²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³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mpact on the Health Behaviors of Children by High Risk Alcohol Drink Behavior of Parent

Ju-Dong Jang¹, Song-Yi Han^{1,2}, Moo-Sik Lee^{3*}

¹Department of Health, The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²Department of Emergency medical service, Seonam University

³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Konyang University

요 약 이 연구는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고위험 음주행동이 자녀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가족의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 졌다. 대상은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 중 고위험 음주에 노출된 16,383명을 선택하여 각 ID별로 부모가 고위험 음주자인 916명을 분류하여 빈도분석, 카이제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위험 음주 부모의 자녀가 정상인 음주 부모의 자녀에 비해 고위험 음주행동이($p<0.01$)이 높았으며 부정적 건강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고위험음주들에 대한 가족형 보건교육이 제도적으로 필요함을 고려하여 음주로 인한 문제의 해결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impact on the health behaviors of the children by their parents' drinking behaviors. We used the data from a community health survey in 2009. The subjects were selected the household that had a child older than 19, and then among them, chose those 916 parents of highly risky drinking exposition among 16,383 control parent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by frequency, chi-square test, and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k program. Parent's high risk drinking behavior was independently associated with children's high risk drinking behavior after adjusting covariates($p<0.01$).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high risk drinking behavior of parents impact highly on the children's high risk alcohol drinking, nutritional behaviors, influenza vaccination, and tooth brushing, so it's necessary to consider a systematic family health education to the high risk drinkers.

Key Words : Family Drinking, Health Behavior, High Risk Drinking, Problem Drinking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2010년 국민건강통계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의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술을 마신 사람이 2005년 72.6%에서 2007년 73.5%, 2008년 74.6%, 2009년 75.7%,

2010년 77.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1]. 이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에 알코올을 다량 섭취하는 폭탄주 문화 등 다양한 알코올 섭취방법들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폐해들이 이슈가 되어 증가하고 있다.

술을 마시는 많은 사람들은 적당한 음주가 긍정적인

*Corresponding Author : Moo-Sik Lee(Konyang Univ.)

Tel: +82-10-2514-4527 email: mslee@konyang.ac.kr

Received May 14, 2013

Revised (1st June 12, 2013, 2nd August 6, 2013)

Accepted August 7, 2013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며 대인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고 긴장이나 불안감을 완화시키며 심장병에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신체적인 질환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가족, 직장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음주가 이슈화되고 있으며 음주 문화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알코올 중독자 혹은 문제음주자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2]. 문제음주자 부모가 있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문제가 자녀들에게 까지 나타나고 있으며 자녀들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하여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3-5]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심리적으로도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6,7].

선행 연구에 의하면 문제음주자 부모를 둔 자녀들은 비음주자 부모를 둔 자녀에 비해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여 건강에 대해서도 더 많이 위협당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으며[6,8], 특히 문제음주가 만성적으로 지속될 때 더욱 불안하고, 우울하게 만든다고 보고되었다[9].

문제음주에 대한 가족력으로 인해 문제음주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증명된 연구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문제음주자 부모를 둔 자녀들이 그렇지 않는 자녀보다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였다[10,11] 보고도 있다.

아버지가 문제음주자인 가정은 가족 간의 상호 작용이 드물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사이에 갈등이 많고 의사소통에 있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역할도 잘 하지 못하여 자녀의 적응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한다[12]. 류 등[13]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보다 관계지향성이 강하여 가족력이 있는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문제음주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Berkowitz et al.[14]는 아버지가 문제음주자인 가정의 자녀들은 일반가정의 자녀보다 자기 비하적이라고 보고 했고, 최 등[15]은 부모가 알콜 중독자인 성인자녀가 부모가 알콜중독자가 아닌 성인자녀보다 우울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송, 부, 박, 김[16-19]의 가족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음주문제를 가족력,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음주태도 및 빈도 등을 학생 음주문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하였다.

음주문제를 줄이기 위해 사회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노력은 가정에서부터 시작 되어야 한다. 가정은 가장 많은 학습이 일어나는 장소이며 일생의 건강습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장소이다. 부모의 알코올에 관한 생각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나타나며 자녀들은 부모의 태도나 성향을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므로 자녀의 건강행동에 있어서 체계적이며 건강한 라이프스타

일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짐으로 인해 부모들의 변화가 곧 자녀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부모의 고위험 음주행동이 자녀의 고위험음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고위험음주 자녀들의 건강행동 변인을 조사함으로써 고위험음주 부모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사업 중재의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시도되었다.

2. 대상과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조사대상 인원은 230,715명이며, 결측 된 80명을 제외한 230,635명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19세 이상 자녀를 둔 세대로 총 125,359명을 선택하였다. WHO[20]에 따른 고위험 음주는 남자는 한번의 술좌석에서 소주/양주 7잔(또는 맥주 1500cc)이상, 여자는 한번에 술좌석에서 소주/양주 4잔(또는 맥주 1,000cc)이상의 음주로 정의하므로 이에 따라 고위험음주자로 선정된 16,383명을 선택하여 각 가구 ID별로 부모와 자녀가 고위험 음주가 아닌 14,942명(91.2%)과 부모가 고위험 음주가 아니지만 자녀가 고위험 음주자인 508명(3.1%), 부모가 고위험 음주자이지만 자녀는 고위험 음주자가 아닌 826명(5.0%), 부모가 고위험 음주자이고 자녀도 고위험음주자인 90명(0.5%)를 추출하여 다시 선별하였다. 선별된 인원 중 부모가 고위험 음주자 916명과 정상부모 15,450명을 따로 분류하였다.

2.2 연구도구

본 연구는 2009년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 조사는 지역보건의로 계획을 수립 평가하고, 조사수행체계를 표준화하여 비교 가능한 지역건강통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원시자료 DB의 표본규모는 시·군·구 당 평균 900명이며 오차의 범위는 ±3%이다. 재개발, 혹은 재건축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지역, 상업 혹은 공단 밀집지역으로 거주가 희박한 지역, 특정 집단(한센촌, 기숙사, 종교단체 집단거주지) 거주지역 등은 표본 가구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1대 1 면접조사임을 감안하여 3회 이상 접촉이 불가능하거나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거주하지 않는 가구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군복무, 타 지역 및 장기체류, 장기입원 등의 이유로 조사기간 내에 접촉 불

가능한 가구원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3 자료수집 방법 및 연구절차

표본가구 내 응답자는 만 19세 이상 가구원 전원이며 조사방법은 가구방문 면접조사이고 면접시간은 1인당 40~60분정도이며 조사내용은 주민의 건강생활습관, 건강수준, 삶의 질, 안전의식, 의료이용, 사회경제적 상태 등 총 400문항 중 자녀의 고위험 음주유무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고위험 음주 부모의 음주행동, 주거형태, 저염식 여부, 영양표시 확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침 식사 후 칫솔질을 분석하였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과 χ^2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별로 남자의 경우 고위험 음주부모는 473명(6.2%)으로 여자의 443명(5.1%)에 비해 1.1% 더 많아 부모의 고위험 음주 유무와 자녀의 성별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5$). 연령별로는 19세 이하에서는 고위험 음주부모는 396명(8.8%), 20-23세는 439명(6.9%), 24세 이상은 81명(1.5%) 등으로 연령이 높아질수록 고위험부모의 비율이 낮아져 부모의 고위험 음주유무는 자녀의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기초생활 수급여부에 따른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에서는 수급자에서 8명(3.3%)에 비해 비수급자에서의 고위험음주부모가 908명(5.6%)로 약간 더 많았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거형태에서는 주택에 경우 고위험음주 부모는 464명(6.3%), 아파트는 385명(4.8%)으로 부모의 고위험 음주유무와 주거 형태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가구 월 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에서 고위험음주부모는 329명(4.6%), 300만원 이상은 572명(6.7%)로 고소득에서 고위험 음주 부모가 유의하게 더 많았다($p<.01$)[Table 1].

3. 연구 결과

3.1 자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 분포

전체 분석대상자에서 고위험 음주 부모는 916명(5.6%)이었으며, 정상 부모는 15,450명(94.4%)이었다. 성

3.2 자녀의 건강행동에 따른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 분포

고위험 음주자녀에서 고위험 음주부모는 90명(15.1%)로 정상 자녀에서의 826명(5.2%)에 비해 약 3배 이상 유의하게 더 많았다($p<.01$). 주관적 건강수준이 좋은 자녀에서 고위험음주부모는 602명(5.9%), 주관적 건강수준이 낮은 자녀에서는 313명(5.1%)로 건강하다고 느끼는 자녀에서 고위험음주부모가 유의하게 많았다($p<.05$). 자녀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distribution of children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high-risk drinking parents. Unit: persons(%)

Study variables	Have the parents of high-risk drinking		Total	χ^2	p-value		
	Parents of high-risk drinking	Normal parent					
Gender	Male	473 (6.2)	7,148 (93.8)	7,621	10.03	.02	
	Female	443 (5.1)	8,302 (94.9)				8,745
Age(year)	Under the age of 19	396 (8.8)	4,116 (91.2)	4,512	282.20	.00	
	20-23	439 (6.9)	5,937 (93.1)				6,376
	24	81 (1.5)	5,397 (98.5)				5,478
Basic living target	Supply and Demand	8 (3.3)	236 (96.7)	244	25.27	.11	
	Non-supply	908 (5.6)	15,202 (94.4)				16,110
The type of housing	Housing	464 (6.3)	6,906 (93.7)	7,370	16.23	.00	
	Apartment	385 (4.8)	7,619 (95.2)				8,004
Household monthly income(won)	Less than 300 million	329 (4.6)	6,837 (95.4)	7,166	31.30	.00	
	More than 300 million	572 (6.7)	8,002 (93.3)				8,574
Total		916 (5.6)	15,450 (94.4)	16,366			

현재 흡연할 경우 고위험 음주부모는 253명(6.3%)였으며, 비 흡연일 경우 36명(4.3%)로 자녀의 흡연유무와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의 경우 고위험 음주부모는 266명(9.7%)로 비노출의 649명(4.8%)에 유의하게 더 많았다($p<.01$). 저염식사의 경우 짜게 먹는 자녀에서 고위험음주부모의 경우 319명(4.8%), 싱겁게 먹는 자녀에서 596명(5.1%)로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와 저염식사 여부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영양표시 확인에 있어 확인하는 경우 고위험 음주부모가 381명(4.8%), 확인하지 않는 경우 495명(6.4%)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우울증상이 주 1-2일 이하인 경우 부모의 고위험음주는 834명(5.4%), 우울증상이 주 3-4회 이상인 경우는 82명(8.3%)로 자녀의 우울증상과 부모의 고위험 음주유무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자녀는 고위험 음주부모가 87명(3.3%)였으나 비접종자의 경우는 829명(6.1%)로 약 2배의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p<.01$). 아침 식사 후 칫솔질의 경우도 칫솔질을 하는 자녀에서 고위험음주부모는 731명(5.4%), 하지 않는 경우 185명(6.8%)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Table 2].

3.3 자녀의 고위험 음주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부모의 고위험음주가 자녀의 고위험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자녀의 고위험 음주유무를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의 고위험음주 유무를 포함한 단변량 분석에서 의미 있는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투입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고위험 음주 부모의 음주가 정상인 부모에 비해 자녀의 고위험 음주 행동에 2.00~4.05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1$). 기타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된 연구변수로는 주거형태($p<.05$), 저염식 여부($p<.01$), 영양표시 확인($p<.0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p<.05$), 아침 식사 후 칫솔질($p<.01$) 등 이었다[Table 3].

[Table 2] Have the parent distribution of high-risk drinking according to the child's health behaviors.

Study variables	Have the parents of high-risk drinking		Total	X ²	p-value	
	Parents of high-risk drinking	Normal parent				
	Unit: persons(%)					
Drinking high-risk children	High-risk drinking	90 (15.1)	508 (84.9)	598	104.98	.00
	Normal	826 (5.2)	14,942 (94.8)	15,768		
Levels of perceived health	Good	602 (5.9)	9,574 (94.1)	10,176	5.29	.02
	Usually, poor	313 (5.1)	5,868 (94.9)	6,181		
Current Smoker	Smoking	253 (6.3)	3,789 (93.7)	4,042	4.96	.03
	Non-Smoking	36 (4.3)	807 (95.7)	843		
Secondhand smoke in the home	Unexposed	649 (4.8)	12,973 (95.2)	13,622	106.62	.00
	Exposure	266 (9.7)	2,465 (90.3)	2,731		
Low-salt meal	Salty	319 (6.9)	4,304 (93.1)	4,623	20.88	.00
	Not Salty	596 (5.1)	11,143 (94.7)	11,739		
Check the nutrition label	Check	381 (4.8)	7,557 (95.2)	7,938	18.20	.00
	Do not check	495 (6.4)	7,287 (93.6)	7,782		
Symptoms of depression(week)	1-2 days less	834 (5.4)	14,531 (94.6)	15,365	14.34	.00
	3-4 times more	82 (8.3)	908 (91.7)	990		
Influenza Vaccination	Yes	87 (3.3)	2,560 (96.7)	2,647	31.95	.00
	No	829 (6.1)	12,884 (93.9)	13,713		
Morning, brushing after meals	Yes	731 (5.4)	12,907 (94.6)	13,638	8.75	.00
	No	185 (6.8)	2,541 (93.2)	2,726		

[Table 3]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or children in high-risk drinking.

Study variables	p-value	OR	95% CI	
			Low	Max
Parent high-risk drinking				
High-risk parents		1.00		
Etc.	.00	2.84	2.00	4.05
Gender				
Male		1.00		
Female	.10	0.70	.46	1.08
Age(years)				
Under the 19		1.00		
20-23	.87	1.03	.75	1.41
More than 24	.27	1.16	.90	1.50
Basic living target				
Supply and Demand		1.00		
Etc	.42	1.44	.59	3.47
The type of housing				
Housing		1.00		
Etc	.01	1.34	1.67	1.69
Monthly income (million won)				
Less than 300		1.00		
More than 300	.74	1.04	.83	1.30
Current Smoker				
Smoking		1.00		
Non-Smoking	.36	1.16	.85	1.58
Secondhand smoke in the home				
Unexposed		1.00		
Exposure	.19	1.21	.91	1.61
Low-salt meal				
Salty		1.00		
Not Salty	.00	1.73	1.37	2.18
Check the nutrition label				
Check		1.00		
Do not check	.00	.61	.47	.80
Symptoms of depression(a week)				
3-4 or more times		1.00		
1-2 days or less	.95	.99	.69	1.42
Influenza Vaccination				
Yes		1.00		
No	.01	.60	.41	.90
Morning, brushing after meals				
Yes		1.00		
No	.00	.67	.53	.87

4. 논 의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음주에 대하여 관대한 태도를 보여 왔고 관대한 태도는 음주의 증가를 불러왔다. 2008년~20010년 지역건강통계에 의하면 지난 4년간 시·군·구 단위지역 분포의 월간음주율 중앙값이 54.1%(‘08년), 55.7%(‘09년), 56.5%(‘10년), 58.2%(‘11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노[22]는 술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궤양을 유발하고, 지방간이나 알코올성 간염 등을 발생 시키며 판단이나 감정조절능력을 저하시켜 언행, 기억력, 운동기능 등에 장애가 오고, 이것이 계속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23]. 게다가 음주는 이러한 신체적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간 불화, 폭력, 기물파괴, 우울, 자살시도, 음주운전, 성폭행 등 각종 건강위험행동과 매우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23,24]. 일시적인 기분전환용 소량의 음주는 해방감, 편안함, 자유로움이나 자신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나 알코올에도 습관성과 중독성이 있어 음주를 쉽게 통제하기 어렵고, 지속적으로 과음을 할 경우 중독으로 발전하는 특성이 있다[24].

특히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인이 된 후 알코올 남용의 가장 강력한 예측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Grant et al., McGue et al., 백[25,26]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사망원인의 10.8%가 음주에서 비롯된다고 하여, 청소년기에 음주를 하게 되면 호르몬계와 신경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 폭력, 성범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Chassinm et al.[28]은 음주 부모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경험한 음주 문제와 관련하여 자녀들은 그들의 부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지만 그들도 성장하면서 음주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러한 영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가 비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에 비해 추후에 알코올 의존이 될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29]. 유 등[30]은 부모의 음주문제와 청소년 자녀의 음주행동과의 관계에서 “부모의 음주문제가 심각할수록 고등학교 자녀의 음주행동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알코올중독자 가정의 자녀가 문제 행동의 발생에 취약하고, 채[31]의 연구에서 우울은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에게 더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보고되는 것처럼 불안이나 우울한 정서의 발생에 취약해진다[32]. 유[33]는 부모의 문제음주가 우울 및 불안을 야기하는 심리·사회적인 환경적 요소로 작용하여 자녀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된다고 하였다.

양[34]은 부모의 음주가 청소년 자녀에게 모델링이 되

면서 청소년의 음주 기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알코올 중독자의 가정은 일반 가정에 비해 가족 응집력이 낮으며[35], 부모와 자녀와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적극적인 문제해결 능력이 저하되는 등[36] 가족 기능이 저하되며 또한 가정 내에서 가족 폭력이 행해지며 가족이 해체되는 현상 등으로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7].

고위험 음주자 부모일수록 자녀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명[38]의 연구에서 부모의 고위험음주가 청소년의 음주 동기에 직간접적인 높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고위험 음주자 부모일수록 자녀가 음주를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9,40] 등의 연구에서 부모의 음주량이 많을수록 청소년의 음주량이 많아진다고 한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어 부모의 음주량이 자녀의 음주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고위험 음주자 부모의 자녀인 경우 흡연을 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음주와 흡연이 관련이 있다는 이[41]의 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흡연여부가 자녀의 흡연여부와 관련이 있다는 강[40]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며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위험도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장[42]은 문제성 음주자의 자녀집단이 비음주자 자녀 집단의 자녀보다 문제음주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4~5배 정도 높다고 하였다. 또한 문제성 음주부모의 자녀 가운데 58%가 문제성 음주자가 되고, 30%는 문제성 음주자와 결혼하고, 12%는 적응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고위험 음주자 부모군의 자녀들이 정상인 부모 군에 비해 고위험 음주 행동이 2.00~4.05배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가족의 기능이 자녀들의 음주 및 건강행동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자녀의 건강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알코올중독자 자녀는 부모에 대한 애정 때문에 부모로 인해 문제가 되는 현실을 거부하고 자신감 저하,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며 음주, 흡연 등의 건강위해행동을 반복하게 된다.

고위험 음주를 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정상부모의 자녀에 비해 흡연을 많이 할 뿐 아니라 가정 내 간접흡연도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고위험 부모의 음주는 자녀의 음주, 흡연, 영양 등 건강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법을 보건교육에 접목하여 함께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문제음주에 대한 바른 인식과 더불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보건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국민의 고위험음주율은 매우 높다. 이 연구는 고위험 음주에 있어서 가족이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하며, 자녀의 건강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 관련성을 확인함으로써 음주로 인한 가족 건강문제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연구는 2009년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18.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χ^2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단변량분석에서 의미 있는 독립변수들을 통제하고 고위험 음주 부모의 음주유무가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되었다.

고위험 음주 부모가 정상인 부모에 비해 자녀의 고위험 음주 행동에 2.00~4.05배로 유의하게 높았다($p<0.01$). 기타 유의한 기여변수로 도출된 연구변수로는 주거형태($p<0.05$), 저염식 여부($p<0.01$), 영양표시 확인($p<0.0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p<0.05$), 아침식사 후 칫솔질($p<0.01$) 등 이었다.

본 연구는 200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한 단면 연구이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위험 부모의 음주가 자녀의 고위험 음주, 영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아침 식사 후 칫솔질 등 건강행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고위험 음주자들에 대한 가족형 보건교육이 제도적 필요함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Statistics 2010 :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V-1), 2011
- [2] Sungsoo Chun, Kyungsook Min, differences of Attitude of the National Alcohol Policy by Problem Drinkers and Normal Drinker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15, No.1, pp. 43-59, 2011
- [3] Lardon, J. H., Taggart-Reedy, M., & Wilson, S. m. The Effects of Perceived Dysfunctional Family-of-Origin Rules on the Dating Relationships of Young Adult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23, pp. 489-512, 2011
- [4] Rubio-Stipec, M., Bird, H., Canino, G., Bravo, M., & Alegria, M.,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in the community.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2, pp. 78-88, 1991
- [5] Jea Soon An, Sung Jin Jung, Kyung Hyun Seo, Parental problem drin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 anger and self-esteem of parents of high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3(1), 17-29, 2012
- [6] Dodd, D. T., & RobertS, R. L., Differences among adult COAs and adult non-COAs on levels of self-esteem,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Addictions and Offender Counseling*, 14, 49-56. 1994
DOI: <http://dx.doi.org/10.1002/j.2161-1874.1994.tb00091.x>
- [7] Yoon Sin Choi, A Study on the Mediation Role of Self-Esteem and Relationship with Teachers between Stress from Study and School Adjustment among COAs high school ,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2(1), 95-112, 2011
- [8] Fischer, K. A., Kittleson, M., Ogletree, R. Welshimer, K., Wohelke, P., & Benshoff. J., The relationship of psrental alcoholism and family dysfunct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48(4), 151-157. 2000
DOI: <http://dx.doi.org/10.1080/07448480009595690>
- [9] Christensen, H. B., & Bilenberg, N.,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in Chilidren of Alcoholic Mother and Fathers. *European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9, 219-226, 2000
DOI: <http://dx.doi.org/10.1007/s007870070046>
- [10] Myeong Suk Yun, hye Jeong Jo, Protective and Risk Factors on Self-Esteem of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11(2), 33-49, 2010
- [11] Williams, O. B., & Corrigan, P. W..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arental alcoholism and mental illness on their adult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48, No.3, pp. 406-414, 1992
DOI: [http://dx.doi.org/10.1002/1097-4679\(199205\)48:3<406::AID-JCLP2270480320>3.0.CO;2-L](http://dx.doi.org/10.1002/1097-4679(199205)48:3<406::AID-JCLP2270480320>3.0.CO;2-L)
- [12] Robinson, B.E. & Rhoden, J.L, Working with Children of Alcoholics, 2nd edn. Sage, London, 1988
- [13] Ji su Ryu, Kyong Hwa Kang, Ji Hyun Lee, Factors of problem drinking among korean adults,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2, No.1, 2011
- [14] Berkowitz, Alan D., and H. Wesley Perkins.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Children of Alcoholic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56, No. 2, pp. 206-209, 1988
DOI: <http://dx.doi.org/10.1037/0022-006X.56.2.206>
- [15] Yun-Shin Choi, Hea-Ryun Kim, Han-Na Kim, Impact of parents' alcoholism on suicide ideations of college student children: Mainly for moderating self-esteem, family func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3, No.2, 2012
- [16] Eun Ha Song, (A) Study on the Elements Influencing the Drinking Behaviors of the Alcoholics'Children ,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996
- [17] Jung Min Boo, An Influence of the Social Factor on the Teenagers's Drinking and Smoking .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1999
- [18] Jong Sun, Park,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Problem Drinking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Vol.26, No.4, 2002
- [19] Yong Soon Kim, A Study on Drinking-Rel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 in the area of environments ,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The Myongji University of Korea, 2003
- [20] WHO(2000) International guide for monitor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lated harm.
- [21] Korea center of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08-2011 regional Health Statistics, 2012
- [22] In Chul Noh, Economic and social costs of alcohol and Policy,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1997
- [23] Ae Ri Son, Risk of Adolescent Sexual Behaviors by Smoking and Alcohol Use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public health association, 28(4), 334-342, 2002
- [24] Ae Ri Son, Ji Eun Park, Comparison of Sexual Behavior between Binge Drinkers and Non-Binge Drinkers among Korean University Students ,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7(1), 27-38, 2006
- [25] Grant B. F., The impact of a family history of alcoholism in th relationship between age at onset of alcohol use and DSM-IV alcohol dependence; Result of the National Longitudinal Alcohol Epidemiologic Survey.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22(2), 144-147, 1998
- [26] Matt McGue, William G. Iacono, Lisa N. Legrand and Irene Elkins, Origins and Consequences of Age at First Drink. II. Familial Risk and Heritability ,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5(8), 1166-1173, 2001
- [27] Kyung Sun Back, Deaths attributable to alcohol among college students, The Inje University of Korea, 2005
- [28] Chassinm Lm Rogosch F., Barrera M., Substanve use and Symptomatology among a doescent children of alcoholic. *J Abnorm Psychol*, 100(4), 449-463, 1991
DOI: <http://dx.doi.org/10.1037/0021-843X.100.4.449>
- [29] Johnson, J. and Leff, M., "Children of substance Abusers: Overview of Research Finding", *Pediatrics* 103: 1085-1099, 1999

[30] Jeong Sun Yoo, Hyeon Hui Jeong, The moderating effects of maladaptive schema and coping style on relation between parental drinking problem and adolescent's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Korean Alcohol Science, Vol 13, No.12, 2012

[31] Seung Hui Choe, Intervention Guideline for Children of Alcoholics , Pyongtaek University, 16, 93-117, 2002

[32] Liberman. D. Z., Children of Alcoholics: An update,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Vol. 12, 336-340, 2000 DOI: <http://dx.doi.org/10.1097/00008480-200008000-00009>

[33] Yoo, C. Y.. Motivation for change in problem drinkers: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on readiness to change for seeking change strateg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2000

[34] Hea jin Yang, Children's COA & psychological-social character by parent's problem drink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5, No. 2, pp 1-12, 2007

[35] H. W. Kim,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group counseling program for regulating anger of adult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0

[36] Werner, M. J., Joffe, A., & Graham, A. V., Screening, early identification, and office-based intervention with children and youth living in substance-abusing families. Pediatrics, 103, 1099-1112. 1999

[37] E. J. Min, The impact of father's problem drinking on the child adjustment: The mediating effect of inter-parental conflict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0

[38] Jae Sin Myung, Min Kyoung Song, Chung Song Kim, A study on drinking-motivation of adolescents in relation with family functions and the mediating effect of problem-drinking of par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8), 291-308, 2011

[39] Yun Hee Won, The Influences of Parents' Drinking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Perceived by Juvenile on Juvenile's Drinking, The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2009

[40] Cheon Kook Kang, Analysis of related factors on high school students smoking and drinking in Inche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2

[41] Jeong Ran Lee, Boc Nam Park, Kyung Hee Yang,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Drinking and Smoking Behaviors and the Relation between Them,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16(2), 196-204, 2005

[42] Su Mi Jang, Study on the effect of short-term group program for raising the child's self-esteem alcoholic, The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ity, 1991

장 주 동(Ju-Dong Jang)

[정회원]



- 2012년 2월 : 삼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보건학 석사)
- 2012년 3월 ~ 건양대학교 : 일 반대학원 보건학과 (박사과정 재학)
- 2009년 7월 ~ 현재 : 사단법인 세계보건교육협회 회장

<관심분야>

공중보건, 보건기획, 보건사업관리, 보건교육

한 송 이(Song-Yi Han)

[정회원]



- 2010년 2월 : 공주대학교 전문응급구조학과 (응급구조학 석사)
- 2012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학과 (보건학박사과정 재학)
- 2011년 9월 ~ 현재 : 서남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관심분야>

보건, 응급구조

이 무 식(Moo-Sik Lee)

[정회원]



- 1999년 2월 : 계명대학교 의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건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 2008년 10월 ~ 2011년 7월 : 건양대병원 임상시험센터 소장
- 2011년 8월 ~ 2012년 7월 : 미국 메이요 클리닉 교환교수
- 2013년 4월 ~ 현재 :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원장

<관심분야>

보건의료관리, 임상예방의학, 산업의학, 병원관리